



죽비와 묵탁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5억→5조원 봉은사땅값 만배

경기북부세에 따른 부동산 활성화에 강남 노른자 땅인 삼성동 코엑스 인근 한전 본사 부지 개발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한전 본사의 경우 공공기관 이전계획으로 2012년까지 전남 나주로 이전된다. 7만9342㎡에 달하는 한전 본사 부지는 시가 1조 2000억 원 수준으로 개발 가치는 5조원 이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처럼 비싼 금액이라 땅이 1970년대까지 봉은사 소유였다. 당시 봉은사 소유의 땅이라고는 사실은 많은 불자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다. 당시 삼성동 일대는 상공부가 정부 인구 분산 정책에 따라 대규모 종합청사 건립 부지를 물색하면서 매각했다. 조계종은 1970년 5억 3000만원(평당 5300원)을 받고 10만 평을 한전 등 상공부 산하 기관에 넘겼다. 지금과 단순 비교해도 39년 간 약 1만 배가 높아진 것이다. 이는 무역센터와 인터넷네트워크 호텔 등 당시 부지를 포함하면 격차는 더욱 벌어진다.

당시 봉은사 소유의 땅이라도 처분권은 조계종 총무원이 가지고 있었다. 총무원이 땅을 매각한 까닭은 중구 중앙공무원 교육원 건물 매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강남 넓은 땅을 남산 건물 한 채와 바꾼 것이

다. 절 땅 매각은 조선시대 억불숭우 정책으로 서울 주요도심 대형사찰이 몇 안 되는 현재, 더욱 큰 아쉬움을 사고 있다.

일각에서는 불교계 회생으로 각종 기관들이 강남에 이전돼, 지금의 변화한 강남이 있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인구증가로 이미 설립된 도시 계획 방침을 물렸던 것은 정부의 속임수에 넘어간 불교계의 '무지' 탓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불교계에서는 삼보장재의 보전에 대한 지적이 계속돼왔다. 4년 인기의 사찰 주지가 남몰래 사찰소유지를 매각하거나, 소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설사임을 만드는 등 정재 유용사건이 발생했다. 종단 소유라도, 종단 권력계파 간 이해득실에 따라 처분되는 경우도 있었다.

종단 재산은 법적으로는 종단 소유로 돼있을지라도 모든 사부대중의 재산이다. 또 먼 훗날에 사찰을 찾고, 불교를 접할 미래불자들의 재산이기도 하다. 최근 국립공원 사찰경내지 제의 요청 등 불교계 재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불자들은 옛 봉은사의 사례에서 재산권 행사의 근본목적이 삼보장재 보존을 위한 것임을 다시 한 번 상기할 때다.

“사찰 경내지 자연공원서 해제하라”

조계종 전국 사찰서 한 목소리... 사찰별 활동 채택 위한 법회 8월 20일 예정

“전통사찰 경내지를 자연공원에서 해제하라!” “종교활동 침해하는 자연공원 반대한다!”

사찰경내지의 자연공원 해제를 촉구하는 7·2본말사주지결의대회 목소리에 2000만 불자가 힘을 보탰다.

조계종총무원장 지관은 7월 22일 조계사 등 3000여 사찰에서 ‘사찰경내지를 자연공원에서 해제하기 위한 전국사찰 동시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는 첫 번째 동시법회로 사찰경내지를 자연공원에서 해제해야 하는 이유를 중심으로 법회가 열렸다. 8월 20일(음·7·1)에는 본말사



7월 22일 서울 조계사에서 봉행된 ‘사찰경내지를 자연공원에서 해제하기 위한 동시법회’에서 대중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주지 결의사항에 따라 사찰 특성에 맞는 실천활동을 채택하는 내용으

로 법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오전 11시 30분, 전국 사찰에서 법종이 여덟 번 울림과 동시에 시작된 법회는 대중들의 피켓팅 및 구호, 법문, 서명활동 순으로 진행됐다.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직접 법문을 서울 조계사(주지 세민)에서는 타종에 이어 1500여 사부대중이 일제히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지관 스님은 이날 법문에서 “오래된 사찰(전통사찰)은 예로부터 수행환경, 가람수호, 신림보존 등에 힘써왔다”며 “지금은 국립공원 등에 오래된 사찰이 강제로 포함되면서 무엇 하나 할 수가 없는 실정”이라 말했다.

이어 스님은 “사찰경내지의 자연

공원 해제가 단시일내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며 “정부와 국회가 이해를 잘하고 한 뜻을 모아 불교계에 대한 중첩 규제를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하나로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법회 후 대중들은 대웅전 앞에 마련된 서명용지에 서명을 하고, 정부에 사찰경내지를 자연공원에서 해제할 것을 촉구하는 의식을 모았다.

한편, 사찰경내지를 자연공원에서 해제하기 위한 서명운동은 서울 조계사를 비롯해 해인사, 선유사, 월정사, 화엄사 등 전국 조계종 사찰에서 지속적으로 펼쳐진다.

글=조동섭 기자 사진=박재현 기자



군종특별교구 2기 교구장 자광 스님 취임. 군종교를 전두지휘하는 조계종 군종특별교구 차기 교구장으로 자광 스님이 취임했다. 군종특별교구는 7월 24일 용산 전쟁기념관 뮤지엄에 2층에서 교구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자광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4년간 훌륭히 군종교구를 이끌어 온 일면 스님의 업적을 이어 군종회버리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글=노덕현 기자, 사진=박재현 기자

건축법 개정, 전통사찰 개보수 가능

건축법시행령 중 일부 ‘적용 2년 유예’

건축법상 제약에 갇혀 화재나 재난에 무방비로 노출되거나 진입로를 제대로 갖출 수 없어 불차 및 관람객들의 안전사고 위험을 지켜야만 했던 전통사찰의 고층이 한시적이나마 해결될 길이 열렸다.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실장 장적)은 “7월 16일자로 건축법시행령에서 도로 및 면적산정 적용이 2년간 유예됐다”고 21일 발표했다.

16일 공포된 건축법시행령은 전통건축에 대한 개축 및 대수선 기준 개선과 함께 인장 등을 담고

있다.

시행령 개정으로 처마가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외됐고, 개축·대수선시 지붕을 범위에 서까래가 포함되지 않는다. 또,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도 기존 1m-6m 간격에서 처마선 0.5m-2m, 외벽선 1m-2m로 조정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한옥 양식을 갖춘 전통사찰의 개·보수와 도로로 인장받지 못해 확장이 불가능했던 사찰 진입로의 증·개설이 가능해졌다.

장적 스님은 “문화재적 가치를

지닌 전통사찰은 수백년 전부터 존재했음에도 건축법상,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땅지에 위치했다는 이유로 신원활동, 재난과 화재 등에 대비하기 위한 도로의 신설·확장 등을 할 수 없었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1962년 건축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존재해 온 전통사찰에 대한 예외적 인정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장적 스님은 “건축법시행령 부분 개정을 통한 일부 해소에 그치지 않고, 조계종은 정부를 상대로 건축법에서 전통사찰을 근본적으로 적용 제외하는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동섭 기자

현대불교로 최상의 공양 法 보시를...

부처님께서는 경전을 바르게 설하고 설명하고 고찰하며 바른 법을 온전히 지키는 법공양(法供養)이 가장 소중한 공양이라 하셨습니다. 한 정 의 ‘현대불교’를 이웃과 어려운 이들에게 법보시하는 것은 다함께 깨달은 세상을 만드는 형상 없는 불사(佛事)가 될 것입니다.

- ▶ 법보시 대상 군법당, 병원, 교도소, 각급 학교 및 공공 도서관, 관공서
- ▶ 법보시 후원 안내 법보시는 1구좌 1000원 이상
- ▶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38-25-0008-365(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문의 (02)2004-8200

종단개혁 new 패러다임 모색

불교미래사회학, 정책좌담회 29일 개최

1994년 종단개혁 시스템에 대한 평가와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산하 불교미래사회연구소(소장 법안)는 7월 29일 오후 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변화와 합리적 개혁을 이야기한다’를 주제로 정책좌담회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법안 스님을 비롯해 현승 스님(前 해인사 주지), 순례재성

공회대 교수, 윤남진 NGO리서치소장이 패널로 참여해 △사회적 변화와 이에 따른 종무행정의 현실 진단 △삼관본원에 따른 종단 각 기관의 위상과 역할 평가 △종단 정치의 현실 진단 △종단의 사회참여와 과제 등에 대해 열린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법안 스님은 “향후 미래지향적인 종단 운영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했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한류스타와 中·日 팬 만남이 절에서?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팬미팅 템플스테이 추진

원조 한류스타 안재욱을 비롯한 인기 연예인들의 팬미팅이 사찰에서 열릴 전망이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종훈)은 7월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안재욱과 김민중 등 한류스타 팬미팅에 참가하는 일본·중국인 팬들을 템

플스테이에 참가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불교문화사업단장 장보배 홍보팀장은 “스타와 함께하는 템플스테이로 보다 친근하고, 대중적인 이미지를 전달해 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것”이라며 “스타와 팬이 함께하는 다양한

템플스테이 이벤트, 홍보작업 등을 진행함으로써 템플스테이의 이미지를 더욱 새롭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하반기 주요사업계획에서 국내외를 비롯한 외국인 참가자들을 위해 교육과 홍보물 제작 등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상연 기자

2009년도 2학기 신입생모집 동방대학원대학교 문화교육원

특별 최고 과정	책임교수
풍수지리학 최고지도자과정	최병용
명리학 최고지도자과정	유방현
실상철학 최고지도자과정	안병철
한국전통 국악지도사	이정석

전문 최고 과정	책임교수
실전 사주명리학 영업 전문가과정(정규반/토요반)	김동현
육효학 전문가과정	최대환
타로카드 전문가과정	김희수

일반 과정	
건강과 양택 풍수인테리어	정안석
고미술품 감정학	정 황
관 상학	최인영
구궁통기	나광영
구성기학	김도희
기문둔갑	신정균
논리로 푸는 사주학 I	김윤연

일반 과정	
논리로 푸는 사주학 II	박성희
논리로 푸는 사주학 III	소재학
도가경전강독	윤무학
명리학 기초	정재혁
명리학 용신론	유경진
명리학 현장강의	장순옥
명상음악치료	보경스님
민 화	권청자
민속음악	이생강
문 인 화	하영준
불교전통의식(기초)	상진스님
불교전통의식(전문)	상진스님
사랑과 연민의 대화	김절란
사주내정법	윤예지
성 명 학	윤예지
실전치유기공	박형용
실전 추나(교정)요법	조혁태
실전 테이핑 요법	조혁태
인 상 학(야간반)	박정희
인 상 학(주간반)	박정희
약선요리와 전통요리	우신자
역점독해	조주은

일반 과정	
요가치유	임동호
유가경전강독	윤무학
육 임(실전반)	조태은
육 임(초급반)	최용균
육 효 학	김도희
이름으로 푸는 사주학	안희성
주역원전	신성수
최면치료	설기문
카이로프랙틱	정지문
한국무용(기본반, 살풀이춤, 민요춤)	한주연
한방과 사주학	한승철
현공풍수학	한승철

등록기간 2009년 9월 1일 화요일 까지

등록방법 방문 및 전화접수(과목별 선착순마감)

개 강 2009년 9월 1일 화요일

학점은행제	
문인화 I	하영준
문인화 II	박병배
서예 I	곽노봉
서예 II	곽노봉
수묵화 I	최현익
동양화기법	이용석
기초동양화	하영준
동양화론	하영준
서화론	곽노봉
채색화 I	박만규
현대회화론	하영준
미학개론	하영준

지원자격 학력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가능 (단, 학점은행제과목은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의 학력 인정 자)

문의처 전 화 : 02)3668-9890, 9872 주 소 :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292-1 오시는 길 : 4호선 한성대입구역 6번 출구 → 버스환승 1111번, 2112번 → 동방대학원대학교 정류장 하차

학점은행제	
불교문예	불교학개론 심상현
	불교문화의 이해 주명철
자연치유	명상과 단전호흡 김형록
	스프리즈맨스 천수정
외 국 어	영어 백원기
	생활중국어 조숙주
문화정보	공인기회과 실행 정달영
	인공지능의 이론 김두완
동양철학	중국철학사 윤무학
	유가철학 윤무학
전통공예	옷칠의 성분분석 권순섭
	옷칠기법 권순섭
미래예측	생활역학 박영창

※ 본 교육원의 교육과정은 이수하시면 동방대학원대학교 총장명의로 수료증이 수여되며, 풍수·명리학은 자격기본법에 의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